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3월 11일(주일) 제1187호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다음세대 응원단'

“최고의 응원은 기도입니다”



서빙고 유년3부 아이들이 선생님과 즐겁게 소그룹모임을 하고있다.

다음은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와
의 일문일답.

이번 집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세대 부모, 교사, 성도들 모두가 다음 세
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도
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사, 부모, 성
도들 모두가 차세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넘
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
래야 차세대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차세대를 위해 집중적
으로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와 가정에서 차세대들을 응원하고,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차세대를 위한 가장 최고의 응원
은 기도입니다.”

차세대 부모, 교사, 성도들에게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차세대들의 영성은 기도하는 부모, 교사,
성도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차세대를 위
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교사, 성도들을 통해
차세대들에게 흘러갈 때 큰 힘을 얻을 것입
니다.”

문의: 02-570-755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3월 15일, 22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차세대 교사, 부모, 성도 대상, 강사 이상준, 서정인 목사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다음세대 응원단'
이 3월 15일과 22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
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이상준 목사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가 3월 15일, 서정인
목사가 3월 22일에 강의한다. 서정인 목사는

한국 컴패션 대표이다. 컴패션은 도움이 필
요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일대일로 결연해서
그들이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하는 국제기구이다. 25개국 1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파워스테이
션의 찬양인도, 차세대 교사의 간증, 메시지,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부모,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
할 수 있다.

다음 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지역사회와 환경 위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다음 주일(3월 18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매주 주말마다 교
통체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와 환경을 위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다.

이날은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
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이촌
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에
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버
스를 이용해도 된다. 택시를 이용할 경
우에는 교회 주변에서 내려서 도보로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
증을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36
개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첼
로 연주자가 그 대상이다.

온누리교회는 분기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대중교
통 종사자들에게 칭찬을 듬뿍 받고 있
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시니어 아카데미' 3월 14일 개강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가 3월 14일 개강한다.

서빙고 시니어 아카데미는 3월 14
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
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 드림홀에
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는
현장등록이나 목회행정실, 양재는 아
이스쿨이나 현장등록을 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3

양재 02-570-7311

서빙고 화재대피훈련 실시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3월 18일 오
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연막기를 이용해서 만든 연기가
발생하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되면 성도들
은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
까지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장
소로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야 한다. 대피장소는 동빙고 근린공
원이다. 이곳에서는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의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된다.

한편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온누리교회 안전관리규정
>을 책자를 발간했다.

안전관리 요령, 사고발생 시 신고요
령, 아웃리치 시 참고사항 등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15-32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 간다 3.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베다족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다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 완공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에게 ‘더 멋진 내일’을 선물하기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고, 산 위에 마을을 짓고 있다. 선교사들조차 가지 못하는 곳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손길이 닿고 있다. 본지에서는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베다족 주민들이다.

/ 편집자 주



NGO 더멋진세상의 후원으로 이번에 새로 완공된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 왼쪽은 예전 모습.

뻥뻥한 풀과 야자수, 끈적이고 무더운 날씨, 좁은 국도(國道) 위를 어슬렁거리는 들개들과 원숭이, 대형 불상과 힌두사원, 이슬람 사당의 이질적인 공존. 스리랑카의 첫인상이다.

지난 2월 27일,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에 갔다. 이곳에 큰 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후원으로 지은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 완공축하 감사예배를 드린 것.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 라투갈러교회 성도, 베다족 추장을 비롯한 주민들, 스리랑카 현지 교단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 완공축하 감사예배는 비단 신식 건물 완공만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외지고 소외받은 베다족을 위한 천국잔치였다. 이제부터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가 베다족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계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27년 전 베다족사역을 시작했던 밀턴 목사(61세)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다.

베다족과 밀턴 목사 그리고 온누리교회

베다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이다. 당시 라투갈러 마을에는 현지인 밀턴 목사 혼자 베다족사역(1991년~현재)을 하고 있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다.

“1993년에 스님들이 와서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스님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마을에 상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여덟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주 오가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밀턴 목사는 그 먼 거리를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밤새도록 달려 라투갈러 마을에 도착해 주일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일을 4년 동안이나 반복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사역하던 밀턴 목사에게 한줄기 빛이 비쳤다. 바로 온누리교회와의 만남이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라투갈러 마을에 다시 교회를 짓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물도 파고, 농장을 만들었고요. 농장에서 나온 수익으로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밀턴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세운 교회와 우물, 농장을 기반으로 목회와 무료진료소를 운영했다. 베다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몹시 힘들어하던 밀턴 목사에게 날개를 달아줄 이가 나타났다. 바로 이성희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이다. 이성희 선교사는 2016년부터 밀턴 목사와 함께 베다족사역을 하고 있다.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선교사가 다음 사역지를 조사하러 라투갈러 마을을 방문했다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동역하게 됐다.

“당시 밀턴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아소카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게 10년 넘게 전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온누리교회에서 그들을 입양한 만큼 더욱 실제적인 동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사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착각이 있었어요. 제가 베다족을 너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에 대해 배우고, 제가 성숙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베다족은 스리랑카 사람들조차 잘 모르거나 관심 밖의 민족이다. 밀턴 목사도 라투갈러 마을에 오기 전까지 베다족을 몰랐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지원과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소외된 베다족에게 가난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었다. 베다족은 원래 수렵을 하던 민족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들은 저축이나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다. 교육열이 높은 스리랑카에서도 문맹률이 매우 높은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별로 없다.

“베다족 사람들은 같은 말을 스무 번 이상 해주어야 이해를 해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해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에게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에 세워진 청소년미션센터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차근차근 가르치다보면 분명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난과 무지의 굴레에 빠져 있는 베다족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제와 긍휼’로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계몽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교회를 통해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청소년미션센터를 통해 교육(영어, 컴퓨터, 음악예술 수업)과 계몽운동을 펼쳐나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베다족은 싱할라족이 들어오기 한참 전인 선사시대(약 3만년 전)부터 스리랑카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다. 그런데 정부의 베다족 이주 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가난의 굴레와 술, 대마, 약물 중독에 빠져 무기력하게 사는 그들에게 도저히 없을 것만 같았던 희망이 생겼다.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이 라투갈러 마을에 살고 있는 베다족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라투갈러교회와 청소년미션센터가 이 마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실론의 나라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인도양 인도 대륙 남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다. 옛 이름은 실론(Ceylon)이다. 공식 국기명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싱할라족 74%, 타밀족 18%, 무어족 7%, 말레이족, 버거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불교 70%, 힌두교 13%, 이슬람 10%, 기독교 7%이다.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싱할라족 대부분이 불교도이며, 타밀족은 주로 힌두교 신자다. 동양의 진주, 불법(佛法)의 섬, 인도가 흘린 눈물방울, 동양의 타히티 등 많은 애칭을 갖고 있

는 나라지만 오랜 식민지배와 민족분쟁(내전), 종교분쟁이라는 쓰라린 상처가 있다. 스리랑카는 44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민족·종교분쟁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모든 권한이 싱할라족에게 넘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타밀어인 ‘실론’을 싱할라어인 ‘스리랑카’로 바꿨고, 국기에도 싱할라족 신화에 등장하는 사자 문양을 넣는 등 싱할라족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1956년에는 싱할라어를 공용어로 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타밀족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토지소유권마저 박탈했다. 타밀족이 반발한 것이 당연했다. 결국 1983년 타밀반군이 13명의 정부군을 살해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집과 상점이 불타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의 종족분쟁은 2009년 5월 타밀반군이 정부군에 항복하면서 막을 내렸다. 26년 가까이 이어진 내전으로 10만여 명의 희생자(전사자, 부상자 포함)가 발생했고, 국가경제가 황폐화되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반무슬림 폭력사태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22일 싱할라족 남성이 무슬림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을 거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 신자들의 집과 상점이 파괴되는 등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밭에 심겨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버려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씨앗을 받는 밭의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이 같은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했는데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원수가 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흥분해서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밭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밭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마 13:37-43).

씨 뿌리는 농부와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농부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했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뜻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씨앗을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씨앗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사탄과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는 가라지가 뽑혀 태워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심판은 확실히 있습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심판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심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양심은 심판에 대한 예감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역사 속에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심판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자체가 심판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한 심판의 때를 혼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뒤죽박죽으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악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한 자는 세상에서 고통 받는데 악한 자가 세상에서 행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하고 흥분했습니다. 더 흥분해야 할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말리는 상황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밭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 종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왜 세상에 사탄

이 여전히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원대로 이 세상을 즉각적으로 통치하신다면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정말 만족할까요?”

주인은 왜 가라지를 발견하는 즉시 뽑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도래는 보류상태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already),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not yet)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심겨진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원수들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밭에 심을 때 원수들은 가라지를 심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듭니다. 밭에 몰래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악을 빨리 해결하지 않느냐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찾으라’는 말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순위가 올바르게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열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원수가 뿌려 놓은 가라지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종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밭까지 뽑을 수 있으니’”(29절).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순수성을 철저히 지키으로써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를 정교하고 철저히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들의 교만입니다. 엄격하고 정교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라지로 판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분열은 교리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 어떤 완전한 교리라도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윌펠드와 웨슬리가 교리적 논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적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몇 가지 교리적인 내용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윌펠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가면 웨슬리는 보지 못하겠죠?”

교리가 잘못되었으니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윌펠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천국에서 웨슬리는 보지 못할거야.”

그 대답에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맞아. 웨슬리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 나는 멀리 있어서 나는 웨슬리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들은 교리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토론했지만, 윌펠드가 웨슬리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규례와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 제도와 규율을 따라오지 않으면 가라지로 판명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제도를 통해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유익함보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알곡만을 세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나 작으나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합니다. 관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의 규모를 작게 만듭니까? 그것 자체가 알곡 신자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까?

(13면에 계속)

우울증, 그만큼 흔하고 그토록 위험하고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6년 만에 10만8,248명 증가
교회가 나서서 품고, 안아주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난 속에서부터 고장 났다. 천천히 날 갇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긴 유서다. 그가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우울증이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던 인터넷방송 BJ가 생방송 도중 투신했다. 이처럼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울증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야 한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도 해야 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우울증은 기분 저하, 의욕 상실, 무기침감 등 감정적 증상과 함께 수면장애, 식욕장애, 집중력 저하 등 육체적 증상을 동반한다. 이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진료통계(2015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사람이 총 60만1,152명으로 전체 진료인원(4,908만8,000명)의 약 1.22%를 차지했다. 100명 중 1명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534,854명이었는데 2013년 591,148명, 2016년 643,102명으로 6년 새 무려 10만8,248명이나 늘었다. 2016년 여성 우울증 환자(43만1,306명)는 남성 우울증 환자(21만1,796명)의 두 배였다.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과 다른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과 함께 진단을 받은 다른 질환은 위염이 23,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불면증(14,376명), 불안장애(12,997명) 순이었다.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신체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신체적 요인은 유전, 뇌질환, 심장, 위장계통 등의 질환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정질환이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신적 요인은 상실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등의 심리적 동기와 환경이 우울증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이 혼재되어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흔히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그만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감기처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은 자살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심리부검센터가 실시한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연구(2016년)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88.4% 중 대부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샘 집사의 제2의 인생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꼭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약물치료, 정신치료(분노와 증오심 표출), 인지치료(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반응 연습), 대인관계 치료가 그것이다. 이러한 우울증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약물치료도 70%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유전적 우울증인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통한 완치율이 30% 미만이다. 후천적으로 우울증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재발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증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훈련을 받는 것도 좋다. 우울증은 다각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도 우울증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 예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는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이샘 집사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한마음회복예배를 드리면서 참 회복과 기쁨을 맛봤다. 한때 그녀는 매우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 두 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조차 없었다. 많이 의지했던 아버지가 급성간경화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우울증을 불러왔다. 당시 그녀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 우울증뿐만이 아니었다. 환경이 들리기도 했다. 환경이 들리는 곳을 따라 걷기도 했다.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2년 뒤 우울증이 다시 재발했다. 이샘 집사는 또다시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5년을 보냈다. 엄마, 아내 노릇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자살기도도 했었다. 그런 그녀에게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다.

“회복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한마음회복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샘 집사는 한마음회복예배를 드리면서 심신의 회복을 얻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회복사역에서 실시하는 회복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했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참된 기쁨도 맛보았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그녀는 한마음회복예배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과거에는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서는 회복예배, 회복소그룹, 회복사역학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회복예배에는 금요회복예배,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월요어노인팅이 있다. 금요회복예배는 말씀과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얻는 예배이다. 예배드리면서 개인의 문제를 치유 받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매주 금요일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금요회복예배 후 새가족반을 마치면 회복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회복소그룹은 5~1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모임이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

을 인지하도록 돕고 있다. 자유와 지지와 회복은 덤이다. 무엇보다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진다. 회복소그룹에는 ‘열린그룹’, ‘자아회복반’, ‘행복반’이 있고, 이슈그룹에는 ‘동반의존’, ‘GOOD(Getting Out of Depression)’, ‘수치’, ‘기쁨의 샘’ 그룹이 있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한다(Joy starts here)반’, ‘영성형성(forming)반’, ‘재출발(restarting)반’, ‘소속(belonging)반’이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가족들, 그들을 돕는 전문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다. 한마음순모임, 메시지 테라피(한마음 정신의학강의), 한마음 수련회, 한마음 상담, 한마음 치유활동, 한마음 치유기도모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등산,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유활동도 한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20분 서빙고 선교관 101호, 양재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에서 드린다.

월요어노인팅은 성령치유집회다.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회복사역학교에서는 내적치유학교, 기쁨의 회복학교, 하트스쿨(어린이, 부모, 사역자),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프리덤스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치유사역자스쿨 등을 열고 있다.

온누리상담센터에서는 MBTI, 애니어그램 등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같은 특수상담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첫 선을 보이는 훈련도 있다. 관계기술 훈련(thrive)과 커넥서스(Connexus) 훈련이다. 관계기술 훈련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고, 그 기쁨을 뇌에 새기며 선택하도록 돕는 뇌기술 훈련이고, 커넥서스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훈련이다.

회복사역 문의: 02-3215-3532

전문가 기고

참 자기(true self) 찾아가는 여정



장순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마음회복예배)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
년이 되면 우울
증이 심혈관 질
환을 제치고 장
애를 일으키는
질병 1위를 차
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우
울증의 유병률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구사회에 비
해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를 만나보는 비
율이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울증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
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자살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큰 문
제다.

우울증,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우울증으로 인한 주요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때사에 흥미나 즐거움을 잃게 되며 지
속적으로 쳐지고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수
면과 식욕 감소 또는 증가를 보이며 피로감
과 더불어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진다.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혹은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기도 한다. 과도한 죄책감을
갖고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한다. 차라리 죽
는 것이 낫다며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
각하곤 한다. 짜증이 늘어나거나 몸이 아픈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
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것을 인정하거나 치
료받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으로
부터 나약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당하
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비난 받기도 한다. 우울증에 취약
한 소인을 지닌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우울증은 명백한 상실과 같은 삶의 스트
레스 사건을 경험하거나 중요한 변화의 시
기에 발생하기도 한다. 정체성이나 자존감
에 손상을 가져오는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
다. 직접적인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
는 경우도 많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하거
나 신체질환에서 동반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울증 현상을 이야기
한다면 ‘자기애’와 ‘고립의 시대’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자기애의 경향이 계속 높아지
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럴듯하게 내세
울 수 있는 학벌과 외모를 갖추려하고 높은
지위, 재산, 권력, 건강을 우상처럼 추구한
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공을 들이
고 몰두하면서 정작 우리의 내면은 외면하



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가치감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것들을 상실하거나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다보니 자신의 기대가 채
워지지 못하게 되면 심한 상처와 손상을 입
게 된다. SNS에 올린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박탈감을 호소하며 나만 불행
한 것 같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즉각적
인 만족을 추구하는 동안 내적으로는 점차
좌절을 견디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500만을 넘을 정
도로 혼자 지내며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자살률과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과 실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제대로 처리되
지 않은 좌절감과 분노는 자신을 향한 비난
과 자기처벌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것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서 악
순환의 고리처럼 돌아간다.

또 삶에서 중요한 대상이었던 인물이 우
리 내면에 어떠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지를 볼 필요가 있다. 어느 환자는 자신의
엄마가 “누구도 너 같은 애를 좋아하지 않
을 거다”는 말을 자주 내뱉던 기억을 떠올
린다. 이 환자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거절하며 가혹하게 대하는 내적 대상이 자

“우울증 극복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깨닫게 해준다면
우울증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해답이다.”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 가족이나 가까
운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살 유가족들, 부모
와 헤어진 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 문
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
회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들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크다. 홀로 고립되면서 결국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지와 관
심을 잃어가고 있다.

우울증 취약 유형과 치료

우울증에서 정신역동이라는 마음의 움직
임을 단순화시켜서 볼 수도 있다.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기애적인 경향이 클수록 뜻하
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이 크고 거절감

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자책과
자기비난, 만성적인 우울감에 빠지기 쉬워
진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마음을 잘 헤
아려주고 돌봐주면 그 아이는 커서 다른 사
람을 신뢰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만 그
렇지 못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
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
이 생긴다. 삶에서 만나는 사건과 어려움들
을 커다란 상실과 실패, 거절의 상황으로 해
석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되고 우울증에 취
약해질 수 있다.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
다. 자신의 경험만을 근거로 특정한 치료방
식을 고집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다.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우울증은 심리
적인 개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일
반적으로 우울증에서는 약물치료가 중요하

며 심리사회적인 치료를 병행한다.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루고 합리적인 대안
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지치료, 감정과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관계를 이어
가면서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신분
석적 정신치료, 행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의
미와 보람을 찾게 하는 행동치료 등이 대표
적인 심리사회적인 접근방법들이다.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다.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에
게 해가 되는 행동이나 자살 같은 위험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
다.

신경가소성(neural plasticity)이란 용어가
있다. 두뇌 영역의 기능과 형태에 변화가 일
어나는 적응과정을 말한다. 이는 손실되었
던 신경회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
를 지닌다. 스트레스나 외상사건, 우울증으
로 인해 손상 받은 두뇌의 신경들이 다시 새
롭게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표적
인 것이 항우울제를 통한 약물치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신치료와 사회적인 지지체
계, 운동, 의미 있는 활동, 묵상과 기도, 섬김
과 봉사 등도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
해 두뇌 연결시스템을 회복시킨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두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반복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과의 만남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도 마
음 판에 새겨지면서 우리 내면이 서서히 변
화될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내재화되면 그분이 가지
셨던 감정과 태도, 바람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
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이고 지속적
인 관계를 통해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예수님께로 나
와서 연결되고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연결
이 되어야 한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우선
이고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처
럼 생각되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울한 증
상이 찾아오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나 길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
을 마주하고 깨닫게 해준다면 역설적으로
우울증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지 우울증에서 벗어나
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 참
자기(true self)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들어
가야 한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
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존
재의 기쁨을 지닌 자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이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양지 이주민사역팀 ‘이주민 문화교실’ 운영

양지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팀은 매주 주일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한다. ‘이주민 문화교실’이 바로 그것이다. 양지 이주민사역팀이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 문화교실에서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와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주일(4일) 그 아름다운 현장에 다녀왔다.



양지 이주민 문화교실에서 기타 강의를 한창이다.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워랭은 일주일에 일요일 딱 하루 쉰다. 한 번밖에 없는 쉬는 날에도 그는 늦잠을 자지 않았다. 설레는 일이 있어 늦잠을 자고 싶지도 않다. 지난주(3월 4일)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친구 동위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열린 일어! 양지 온누리교회에 한국어 배우러 가자!”

워랭과 동위아는 한국에 온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 읽고 쓰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웠다. 그들은

한국어를 더 많이 배워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시험도 통과하고 싶었다. 문제는 일요일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저는 문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 9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 시간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요. 제가 쉬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는데 그날은 한국어 학원이나 센터들이 문을 닫고요.”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 여러 군데

수소문하다 일요일에도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을 찾았다. 교육비도 무료였다.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가 따로 없었다. 그들이 찾은 일요일에 이주민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은 양지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팀이 운영하는 ‘이주민 문화교실’이다.

평생 교회 문턱 한번 넘어 본적 없었던 불교도 워랭이 지금은 매주 양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양지 이주민 문화교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친구 동위아를 초청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 한 명의 선교사 파송

양지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초부터 매주 주말마다 이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와 기타를 가르친다. 미얀마에서 온 워랭과 동위아, 필리핀에서 온 마크, 파키스탄에서 온 알리와 노만 등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양지 이주민 문화교실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전문직 이주민 등 직업과 국가에 따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 한 명과 학생들이 그룹과외 형식으로 공부하고 있다.

친구 워랭의 소개로 이날 이주민 문화교실에 처음 온 동위아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배웠다.

“된장찌개 주세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동위아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어 실력을 쌓는 것이 소원이다.

“미얀마에도 지금 다니는 회사 지부가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면 그곳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만약 동위아가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한국어 실력을 쌓고, 복음을 듣고, 미얀마에 있는 회사로 근무지를 옮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주민 문화교실에 출석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온 마크는 반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원래 반아쓰기를 잘했는데 한동안 필리핀에 다녀온 뒤로 실력이 부쩍 줄었어요.”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알리와 중고차 무역을 하고 있는 노만은 한국어 고급 어휘까지 배웠다. 그들 모두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날 처음 나온 동위아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양지 이주민 문화교실이 너무 좋아요. 매일 나오고 싶을 정도예요. 평일에도 이주민 문화교실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지 온누리교회가 이주민 문화교실을 시작한지는 1년밖에 안됐지만 그 열매는 풍성하다. 지난해 양지 이주민 문화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본 이주민 10여 명 중에서 1명만 빼고 모두 합격했다.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이주민들이 양지 온누리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와 기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양지 온누리교회에는 아직 이주민을 위한 예배가 없다. 대신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성경 구절과 찬양 가사를 자료로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는 성경공부반을 오픈할 예정이다. 양지 이주민사역팀은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한국어와 기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역칼럼



임연혁 집사
(양지 온누리교회)

2016년 말 양지 온누리교회는 이주민 사역팀을 만들고 팀원을 모집했다. 선교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했다. 우선 안산M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교사교육을 실시해서 한글교실 교사부터 양성했다. 전도도 했다. 전도지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은행, 시장, 버스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했다. 이주민 전도경험이 많은 자매가 용감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초보 전도자들도 담대하게 전도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이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전도의 신비한 체험을 한 팀원들(주로 자매님들)이 전도만 나가면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반갑게 다가갔다. 이주민들이 모이자 그들을 픽업할 차량이 필요했는데 교회에서 승합차 두 대를 지원해줬다. 두 분 집사님이 주말마다 열심히 섬기고 계신다.

이주민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좋은 급수를 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반을 만들어 열심히 가르쳤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원하는 급수를 따다. 그런데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이주민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한글을 배웠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찾아올 거라 믿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지난 학기에는 한국어 교사들이 이주민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성경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

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불교권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성경말씀을 같이 읽다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적도 있었다. 반면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바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된 일 때문에 주일에는 쉬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교회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교실과 병행해서 흥미로운 활동을 기획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기타동아리가 그 일환이다.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타를 많이 기증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다. 한 성도님은 기타를 다섯 대나 한꺼번에 기증해주셨다.

이주민 노동자들은 극심한 외로움과 큰 두려

움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산업재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안전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이주민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고 괴로워했다. 이주민 사역 팀원들은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한글을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양지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팀에는 몇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해당 국가에서 선교 경험에 있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세워지도록,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해당 국가 선교사들과 연결되도록, 이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나 업계가 조속히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내 인생 2막은 선교사!

갈렙선교학교, 은빛날개세미나 개강
(3월 19일) (4월 3일)

인생 2막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만큼 귀한 도전이 또 있을까? 은퇴 이후 돕는 선교사나 가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스쿨이 있다. '갈렙선교학교'와 '은빛날개세미나'다. 갈렙선교학교는 3월 19일, 은빛날개세미나는 4월 3일 개강한다. 갈렙선교학교는 돕는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이다. 은퇴자나 은퇴를 준비 중인 성도,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대상이다. 은빛날개세미나는 은퇴 이후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크리스천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가 대상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시니어들이 은빛날개세미나에서 은퇴 이후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복한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한창이다. 그런데 은퇴의 정의가 무엇일까?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직장생활을 끝내는 것일까? 은퇴는 사전적 의미와 은퇴 이후 역할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은퇴 이후 역할에 따른 정의에서는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자아성찰의 삶을 추구하고, 생활방식에 유연성을 갖는 사람'을 가리킨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 712만 명의 은퇴가 시작됐다. 은퇴는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은퇴를 통해 가정과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개인적인 성숙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은퇴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과 더불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삼중고(三重苦)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은퇴 준비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경제력, 건강, 역할 등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은퇴자 74%가 '은퇴 이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은퇴 이후 남은 시간'을 '은퇴자의 여가생활'이라고 하는데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자금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여가생활 준비도가 현저하게 낮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은퇴자 여가활동 준비 점수가 100점 만점에 48.1점에 불과했다. 은퇴자 53.1%가 여가생활을 시작한 적이 없고, 39.7%는 취미나 여가생활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이렇듯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하다보니 그 긴 여가시간을 TV시청하는 것으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

는 총 가용시간이 11만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서 TV시청 시간이 3만3,200시간이나 된다. 총 가용시간의 3분의 1에 달한다. 은퇴 이후 무료로 TV시청하는 것으로 여가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은퇴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 주어지는 그 긴 여가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워야 할까? 이는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의 질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깊이 생각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때마침 은퇴 이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스쿨이 개강한다. 2000선교에서 개최하는 '갈렙선교학교'와 사회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은빛날개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돕는 선교사 세우는 '갈렙선교학교'

갈렙선교학교는 돕는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이다. 선교사를 돕는 실질적인 계획과 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갈렙선교학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 번의 모의훈련을 마치고 올해 첫 선을 보인다. 갈렙선교학교의 설립 취지는 은퇴를 앞둔 성도와 은퇴를 한 성도들이 가진 자원을 선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동체 선교사역자도 참가할 수 있다.

갈렙선교학교는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1주차에는 인생의 굴곡과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라이프 맵핑(Life Mapping)을 그려보고, 2주차에는 국내에서 선교공동체로서 선교사와 동역하는 방법을 배운다. 결연선교사와 협력하여 선교지 상황과 국내 동원 가능한 선교자원을 조사하고, 중기 선교사역 계획도 세운다. 3주차에는 돕는 자(Helpership)의 태도를 배운다. 모세를 도운 아론, 여호수아를 도운 갈렙,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바울의 조력자 바나바 등과 같은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돕는 자세를 배운다. 4주차에는 '문화장벽'과 '선교'에 대해 다룬다. 종족 간의 행동양식, 믿음과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다. 특히 이슬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배운다. 5주차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배우고, 6주차에는 선교사들의 삶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7주차에는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눈다. 8주차에는 갈렙의 변화를 살펴본다. 은퇴 이후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와 대처법을 배우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갈렙처럼 크리스천이 은퇴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질적인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은퇴자나 예비 은퇴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공동체 다락방장이 다락방 책임선교사를 보다 잘 섬기기 위해 다락방 내에서 한 조를 이뤄 참석하면 더욱 좋다. 다락방과 결연된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지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좋은 과정은 없다. 회비는 6만원.

은퇴 이후 설계하는 '은빛날개세미나'

은빛날개세미나는 은퇴 이후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1년 동안 모의훈련을 거친 다음 2015년부터 시작했다. '은빛날개'는 시니어(senior)들이 두 날개를 펴고 다시 아름답게 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은빛날개세미나의 비전이자 목표는 크리스천들의 은퇴 이후 삶이 휴식(Relax), 쉼(Rest),

오락(Recreation)을 넘어서 운동(Walk)하고, 일거리(Work)를 찾고, 예배(Worship)를 드리도록 돕는 것이다.

은빛날개세미나는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강의와 현장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주차에는 은퇴 이후 모습을 돌아보고, 2주차에는 은퇴 이후 건강관리, 3주차에는 은퇴 이후 재정관리, 4주차에는 은퇴 이후 관계관리, 5주차에는 사회선교 현장실습, 6주차에는 은퇴 이후 신앙생활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강의 이후 참가자들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된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활동 가능한 사회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려는 것이 목적이다.

은빛날개세미나의 유익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재정립한다. 둘째,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발견한다. 셋째, 새로운 친구관계를 만든다. 넷째, 은퇴 이후 크리스천으로서 재정과 건강, 관계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다섯째, 사회선교 활동을 통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배울 수 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고, 과거가 미래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후배들에게 인생의 교훈과 정보를 제공하고 노년의 여유를 분노나 무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게 된다.

은빛날개세미나는 은퇴 이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이다. 은퇴한 성도나 은퇴를 준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회비 1만원.

문의: 은빛날개세미나 02-3215-3436
갈렙선교학교 02-3215-3644

전문가 기고

크리스천 청년 창업,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신앙과 전문성 갖춰야

청년 고용시장이 썰렁 얼어붙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통계청). 전체 실업률 3.2%보다 세배나 높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청년 창업 아이템 상위 4개 종목(전체 창업 아이템의 67.7%) 5년 생존율이 소매업 17%, 음식숙박업 15.5%, 서비스업 30.6%, 도매업 32.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들이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세청). 청년 창업은 정말 절망적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강동 온누리교회 김창석 집사가 성경적인 청년 창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창석 집사
(강동 온누리교회, AAI 엔젤투자/(주)엘스톤 대표)

4차 산업혁명, 융복합시대, 블록체인, 디지털시대 등 시대적 환경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 창업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의 새로운 산업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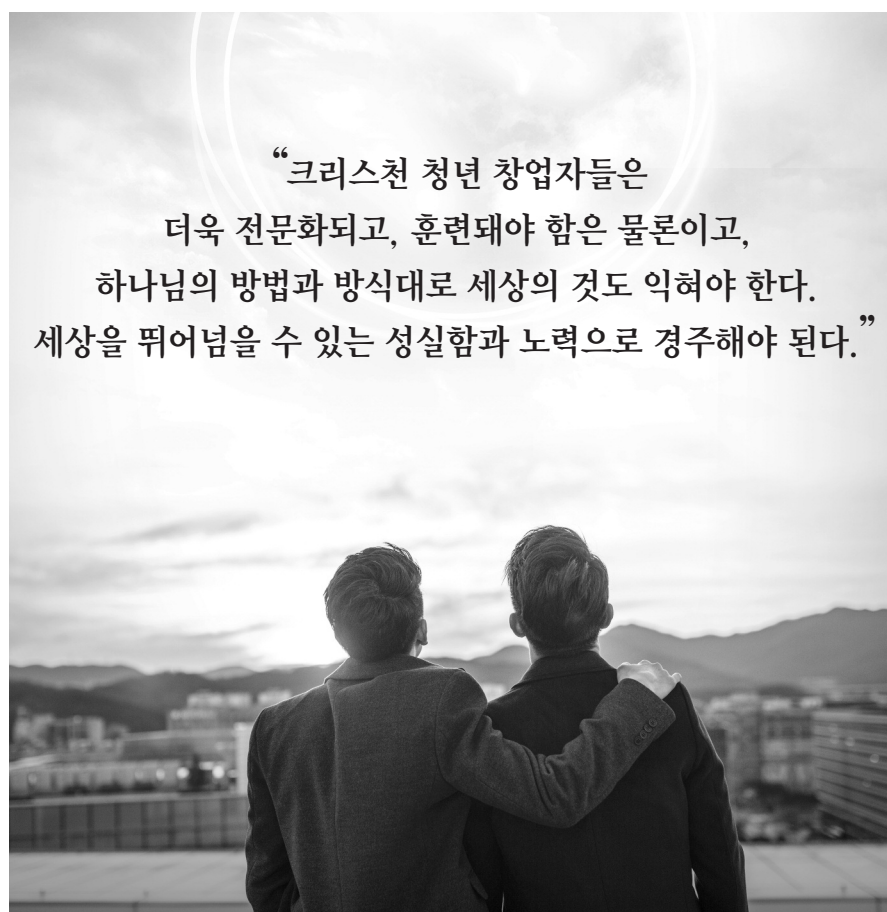
나는 지난 5년 동안 청년 창업 현장을 지켜 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게 되었다. 유행적 성공을 향해 내달리는 청년도 있었고, 특화된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둔 청년도 있었다.

청년 창업은 몇 번의 창업과 실패를 거듭하고 살아남은 자가 비로소 성공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은 이야기이다. 나는 청년 창업 액셀러레이터(청년 창업자 발굴 및 투자,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람)로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모델’

청년 창업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기업가 정신’이다.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창업으로 시작된 모험(Venture)은 가면 갈수록 미지(未知)의 길을 걷게 된다. 사업 프로세스의 무지(無知) 속에 순간순간 터지는 좌절의 지뢰밭을 지나게 된다. 유혹과 헛된 꿈을 꾸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업의 근본적인 의미와 뜻, 창업의 진실된 내용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청년들이 맘몬에 속아 물질만능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이다.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적 창업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새로운 창업 업무에서도 골로 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중요한 일یدن 하찮은 일یدن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해야 한다. 이 점을 청년 창업자들이 바로 알아야 험난한 창업 여정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창업의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다. 막연하게 스펙을 쌓거나 현실도피성 등 불명확한 마음과 시각으로 시작된 창업 모델이 있다. 반면 기도로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아이템을 검토하고, 시장조사 및 상용화 가능성(사업 타당성) 등을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하며 계획한 창업 모델이 존재한다. 둘 중 어느 쪽이 성공할까? 비록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확률이 높음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수의 크리스천 청년 창업자들을 상담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일반 청년 창업자들의 행보와 비교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많이 봤다. 일반 청년들이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 중심으로 발 빠르게 창업의 길을 가는 것에 비해 크리스천 청년들은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아이템을 구상한다. 이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이도저도 아닌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았다. 더군다나 그 청년들 대부분이 신실한 지체라는 것이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창업의 본질과 명확한 사업계획서, 비즈니스모델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그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창업가가 될 수 있는지 액셀러레이터로서 고민하고 있다.

성경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가르침과 깨달음을 준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단 1:4).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준비된 자였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크리스천 청년 창업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니엘은 망국(亡國) 유다를 원망하며 기도만 하지 않았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준비하고 노력했다.

크리스천 청년 창업자들도 다니엘처럼 창업을 위해 더욱 전문화되고, 훈련돼야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익혀야 한다.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실함과 노력을 갖추고 경주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림으로써 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창업, 아이템에 답이 있다

청년 창업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아이템의 필요성이다.

창업의 성공 요소 중 하나는 아이템이 시장과 고객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많은 고객들이 찾고 구매하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청년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아이템이 창업자 본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템은 고도화를 거쳐 제품 양산과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템은 열정과 시간, 정부의 각종 지원과 투자를 소용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자신들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템이 시장과 잠재적 고객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말 우리의 불편적 생활 속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의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단 1:19-20).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단 1:17). 여기에 답이 있다. 크리스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템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그 어떤 복잡한 구조로 형성된 비즈니스보다 차별화되고, 청년 창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은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글로벌 창업’이 트렌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크리스천 청년 창업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이자 창업기업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를 위하여 크리스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 및 멘토로 섬길 것이다.

영육회 비전트립 후기 (2006년 장립된 장로들의 모임)



서성열 장로
(동작공동체)

2006년 장립된 장로들의 모임 ‘영육회’ 소속 일곱 커플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동아시아 B국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동아시아 B국은 영육회 소속 장로 중에서 선교사로 헌

신한 A장로의 사역지이다.

각자 사역으로 인한 분주함을 내려놓고 숨 한번 쉬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마침 A장로가 동기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번 비전트립이 이뤄졌다. 주님께서 분주함 속에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쉬을 위해 배를 탔던 것처럼 우리 일행도 동아시아 B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동아시아 B국의 K도시에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공인들의 모습이 이질적이었지만 사람들과 마을의 모습은 마치 20여 년 전 한국의 지방도시 같았다. K장로의 환대와 이곳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 비전트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첫날은 해발 5천미터가 넘는 곳을 가야 했다. 그 높은 곳에 고성이가 있다고 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산소캔을 사서 사용법을 배웠다. 추운 산속 날씨를 대비해서 옷과 목도리, 마스크까지 완전무장을 했다. 케이블카가 시작되는 3천 미터 지점에서조차 숨 쉬는 게 힘들었

다. 경치는 아름다운 절경이었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곳이었다.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파왔다. 몸이 휘청거리고 드러눕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산을 내려와야만 했다. 그 순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K장로의 수고를 알게 되었다. 두통과 구토 등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고산 지대 사역을 다닌다는 친구의 애환과 어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역과 삶 그리고 도전

K장로가 담담하게 들려주는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삶이 큰 도전이 되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우리와 만나기로 했던 현지인 형제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우리와 만날 수 없다는 형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곳이 진짜 이방(異邦)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호랑이가 건너다녔을 것 같은 가파른 협곡, 절벽과 고산에 실처럼 그어진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길들을 보면서 위대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곳을 다니면서 길을 만들고 왕래했을 인류애와 그런 인간의 노력조차 티끌처럼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자연환경이 눈앞에서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다.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길을 곡예하듯이 달려 도착한 곳은 ‘Half Way(중도, 절반)

‘Half way’ 정탐여행



동아시아 B국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온 영육회.

’라는 이름을 가진 산장이었다. 꼬불꼬불 산허리를 돌 때마다 나오는 Half Way 이정표를 보면서 은퇴 이후 남은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비쳐졌다. 이 여행이 우리 인생의 Half Way 여행연습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 비전트립은 춥고 험난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친구의 고단함을 몸

소 느낄 수 있었다. 힘들고 고된 선교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Half way 비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행 삼아 동기 장로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움을 체험했다.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또 다른 ‘Half way’ 정탐여행을 떠나고 싶다.

LA 온누리교회 멕시코 아웃리치 후기



이종태 장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지난 1월 멕시코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에 초등학교 완공예배를 드려 다녀왔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

도들은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을 ‘샘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샘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을 갈급하게 찾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샘마을이라고 부른다.

멕시코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은 황량한 산등성이에 있다. 풀 한 포기 찾기 힘들 정도로 돌만 잔뜩 널려있는 곳이다. 눈으로 보기에 도 작은 소망조차 없어 보이는 동네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자 철조망을 열어주는 소녀가 있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때가 많이 묻어 누추한 모습이었지만 눈망울이 유난히 반짝이는 귀여운 소녀였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그 소녀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다.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은 멕시코 티후아나 동쪽 끝 산중턱 쓰레기장 근처에 위치해 있다. 2년 6개월 전부터 형성된 빈민가이다. 현재

500여 세대 주민 3,000여 명이 살고 있다. 남성들은 대부분 도시에 나가 일용 잡부로 일하고, 여성들은 마을 옆 쓰레기장에서 빈 병이나 캔 등을 주워다 판 돈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동안 미국 NGO ‘Mercy’가 이 마을을 돕고 있었다. 원룸 형태로 집을 100여 채 지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을 어린이들은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한 시간 반가량을 걸어야 한다. 그 길에서 납치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5월 이 마을을 방문했다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경청한 다음 NGO 더멋진세상과 NGO Mercy와 힘을 합쳐 초등학교를 세워주기로 결정했다.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 입구에 세워질 초등학교는 교무실을 포함해서 교실 14개를 건축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건축팀, 의료팀, 실무팀 등 2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을 찾았다. 교실을 조립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다. 하루 작업을 마치고 다시 로스앤젤레스 교회로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정말 고단한 일정이었다. 그래도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 사역에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마을에 일어난 기적과 소망



푸엔페스 초등학교에 모인 마을 주민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했다. 섬기는 기쁨과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올해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푸엔페스 초등학교 옆에 교회, 마을회관, 운동장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이 마을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도울 것이다. 이 마을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마을이 되게 할 것이다.

선교는 그들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멕시코 푸엔페스 델 바이에 마을로 들어가는 철조망 문을 열어 주던 그 귀

여운 소녀가 생명을 살리고, 샘물이 팔팔 나오는 진정한 샘마을에서 자라기를 소망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씩씩하게 잘 자라주기를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한다. 푸엔페스 초등학교를 통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임현수 목사가 귀환 감사예배에서 간증하고 있다.

“억류된 31개월은 축복이었습니다”

임현수 목사 귀환 감사예배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귀환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3월 8일 오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드린 이 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하중 장로 등 한국교회 리더십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는 홍정길 목사의 설교, 임현수 목사의 간증 순으로 진행됐다.

임현수 목사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2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의료, 아동, 노인, 농업, 식량 등 다양한 사역을 해오다 지난 2015년 1월 억류됐다. 북한은 임 목사가 대형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며 종신형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해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풀려났다.

/ 김영선, 권찬송 기자

임현수 목사의 간증

하루 8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는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성경을 읽었더니 북한 사람들이 “당신 성경 보는 모습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를 24시간 365일 50여 명의 사람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과 수십 대의 카메라로 감시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2018 가장 임팩트 있는 전도 세미나

‘온누리 맞춤전도’ 3월 19일 18시 두란노

두란노 ‘온누리 맞춤전도’ 세미나가 3월 19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여성민 목사(온누리교회 전도본부장)와 고정민 장로(복음의전함 이사장)다. 특별 게스트는 가수 박지현이다.

온누리 맞춤전도 세미나에서는 ‘맞춤전도 소개’, ‘구역맞춤전도의 실제’, ‘국내외 복음광고선교사역 사례 및 효과적인 전도 콘텐츠활용’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 참가대상은 목회자,

구역장, 전도팀 등이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biblecollege.or.kr)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은 전화(02-2078-3456)로만 신청을 받는다. 회비는 4만 원. 단 3월 12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은 2만 원, 타교회 성도는 1만 원을 할인해 준다.

문의: 02-6673-0091

02-2078-3456

/ 권찬송 기자

CGNTV 제2회 시청수기 공모전

CGNTV가 제2회 시청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CGNTV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 이야기’다. 3월 27일까지 CGNTV 홈페이지와 메일, 우편(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콘텐츠

편성전략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분량은 A4용지 1~2장 내외다.

접수: www.cgntv.netcgnessay@cgnmail.net

문의: 02-3275-9446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3월 14일 개강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Bible Academy)가 3월 14일 개강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대학청년들에게 성숙과 헌신, 신앙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이룸센터, 여의도에서 진행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필수과정과 영적성장을 위한 선택과정으로 운영된다. 필수과정은 CDC(Cristian Discipleship Course), 일대일 양육자반이다. 선택과정은 예통비전(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90일 성경 통독)이다.

이서진 목사(대학 청년부)는 “대학청년들의 영적 자질과 믿음의 태도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바이블 아카데미에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3215-3759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 참가자 모집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강의하는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세미나에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묵회’, ‘영성일기 단원별 핵심강의’, ‘영성일기 훈련 사역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특강과 실습이 병행된다.

목회자, 사모, 신학생 등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3월 17일까지 홈페이지(www.journalwithjesus.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5만원. 문의: 031-753-2703, 070-4480-1591~2

관계기술세미나 개강

관계기술세미나 수요일 오후반과 금요일 저녁반이 개강한다. 수요일 오후반은 3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8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금요일 저녁반은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8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된다.

관계기술세미나에서는 ‘운유한 보호자가 되기 위한 19가지 관계기술’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회복사역 본부장)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문의: 회복사역(02-3215-3532), 이병국 팀장(010-6275-8005)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개최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nnuri Mission Orientation)이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다음 작성해서 이메일(anam73@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6

47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47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1주), 가평 교원비전센터(2주), 과천 로고스센터(3, 4주)이다. 47기 젊은부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정 원리, 성경분석(피플퍼즐), 자기애로의 여행, 부부의 재정 원리, 부부대화 및 남녀 차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대상은 결혼 12년 차 이하 젊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젊은부부학교 카페(cafe.naver.com/marriagebuilders)에 가입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이스쿨(school.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35만 원이다. 문의: 010-7377-3913

일.하.세. 사역팀 GUM예배 특강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역팀이 3월 17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GUM(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 특강을 실시한다. 최정주 권사(이수공동체, 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가 ‘소통형 인간’을 주제로 강의한다. 르네상스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비교·조명하면서 성경적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청, ‘멘토비전나이트’ 개최

대학청년부가 개최하는 멘토비전나이트(Mentor Vision Night)가 3월 12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멘토비전나이트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場)이다. 이날 비전나이트에서는 박재연 대표(Replus)가 강의한다.

인천, ‘WIN THE CAMPUS In SongDo’ 집회

인천 온누리교회가 ‘WIN THE CAMPUS In SongDo’ 집회를 개최한다. 3월 18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2층 볼룸C(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123)에서 진행된다. ‘WIN THE CAMPUS In SongDo’는 송도 주변 국제 캠퍼스(인천대, 연세대, IGC글로벌 캠퍼스 등)의 대학청년들과 다민족예배의 비전을 공유하는 초청집회다. 문의: 010-2816-4747

한마음정신회복예배 간증



/ 한의숙 성도(서초C공동체)

남편의 치유와 회복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생활한지 30년 후에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년 전 반포로 이사했는데 집들이 차 30년 신앙동료이자 친구인 전순분 집사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 전 집사는 12년 전에 온누리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다. 전 집사로부터 온누리교회에 같이 다니자는 권유를 받았다. 전 집사에게 남편이 불면증으로 하루하루 고생을 한다는 말을 전했더니 온누리교회에 한마음정신회복예배가 있다면서 와 보라고 했다. 마침 전 집사가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심어로 봉사하고 있어서 우리 부부는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전 집사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나도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섬기고 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했는데 이제는 신앙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마음이 하나 된 것이 느껴진다. 남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번 회개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보였다. 남편도 온누리교회에서 새신자교육을 받고, 일대일 제자양육도 마쳤다. 주일성수도 잘 지키고 있다. 남편은 예수님을 믿으

며 담배를 끊었고 술은 아주 끊지는 못했지만 가끔 마신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말쑥이 들어가 변화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 같다. 요즘은 뜨거운 성령체험을 받기 원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 매일 나오는 큐티 책<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알아가고, 묵상하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체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배안내 봉사도 하고 있다. 아직도 성화의 길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남편의 믿음이 날이 성장하고 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마음정신회복예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축복하는 한마음정신회복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회복’을 주제로 한 이정환 목사님의 설교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 매주 예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듯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이 말씀처럼 남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참 제자로의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서정연 성도(송파공동체)

내게 주신 사명

‘와이 무슬림?’ 과정을 듣는 남편과 시간적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와이미션 과정을 선택했다. 그런데 와이미션 과정은 토요일 오후 내내 진행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는 나에게 부담되었다. 하지만 와이미션 교재를 읽고,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지식이 확장될 때마다 감개무량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에 선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선교사들의 삶은 대단했다. 토머스 선교사는 자신의 젊음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내놓았고, 로제타 홀 선교사는 자녀까지 한국 땅에 묻으며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타국까지 와서 헌신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삶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도 알게 되었다.

2천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복음이 전파되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로 개신교가 생겨났고, 오늘날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 12~13세기 이슬람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해 갔지만 17세기 윌리엄 캐리와 미국을 통해 하나님은 근대 개신교 선교의 장을 여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일생을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점들을 연결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리라 믿는다. 내 삶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급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것이다.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을 위해, 북한에 남겨진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박해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종족을 위해서다. 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굳게 믿는다.

마포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 박종익 집사(마포공동체)

진정 가치 있고 보람된 일

마포공동체에서 2월 2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보호섬으로 겨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보호섬 주민들의 영혼구원과 그곳에서 사역 중인 어원·남미선 선교사 부부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였다.

아웃리치팀원 27명은 중보기도팀, 어린이 사역팀, 성인사역팀, 급식팀, 지원팀으로 나뉘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산길을 따라 마을과 학교를 찾아갔다. 필리핀 언어로 준비한 찬양과 스킷드라마, 이·미용사역, 부채춤 등 다양한 사역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순전하고 해맑은 필리핀 어린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준 것 같아 너무 기뻐했다.

필리핀은 약 7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려 400년 동안 스페인의 통치와 100년에 걸쳐 미국과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인지 국민들의 응집력과 정체성이 약해 보였다. 또한 스페인 통치 시절 들어온 천주교가 현지 토속 신앙과 혼합된 모습을 띠고 있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선교사님 부부는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제자 삼는 사역을 해왔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정과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고백하셨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자양육은 능률이나 효율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예수님이 이 광활한 세상에서 12명만 제자 삼으시고 하늘로 가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은혜 가운데 아웃리치를 마칠 수 있게 기도해 준 마포공동체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열정과 넘치는 사랑으로 보호섬의 어린이들과 선교사님 부부를 잘 섬겨준 아웃리치팀원들과 순정훈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그곳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 간증



/ 김나영 성도(SNS공동체)

이제는 두렵고 불안하지 않다

스무 살 때부터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다녔다. 리더십으로 섬기기도 했고,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다 알지’라는 교만과 하나님을 중심에 둘만한 여유가 없다는 어리석은 오해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을 통해 나의 교만과 오해를 풀어주셨다.

나는 10년 동안의 투병생활 끝에 3년 전 하나님 곁으로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희망과 긍정에 대한 끈을 놓으려고 했다. 천국소망으로 견디려고 했지만 생명보다 죽음을 더욱 묵상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과 마주하고 배우면서 깨달았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양육자님께서 내게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는 말씀을 외우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생전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축복의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해주셨다. 당시 나는 재취업을 위하여 수많은 합격과 불합격 문턱을 왔다갔다하면서 자기연민을 느껴야만 했었다. 아버지의 그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을 더 붙잡았었다. 그런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모든 자책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벗어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위로로 다가왔다.

매주 말씀을 찾아보고, 직접 쓰고, 외우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 생명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내 평생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나 스스로 세운 벽을 허물게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안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직도 회복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고 불안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장로칼럼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을 보내며



강익선 장로
(강동 온누리교회)

강동 온누리교회의 전신은 건대 온누리교회이다. 2007년 12월 1일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소속 청년

569명이 건대 온누리교회로 파송되어 2008년 2월 24일 건

국대학교 새천년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시설이 열악했다. 음향시설이 좋지 않아 새로 마련해야 했다. 오전 9시 예배를 준비하려고 새벽 6시부터 나왔고, 오후 예배를 끝내고 정리하면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에 갔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지만 건대 온누리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부흥했다. 창립 2년 만에 대학생과 청년들만 1,000명이 넘었다. 이때 건대 온누리교회에 소속된 많은 청년들이 사역자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기였다. 그 부흥의 역사에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러웠다.

2010년 10월 3일, 장소 대여 연장이 안 되면서 천호동에 있는 나비쇼핑몰로 오게 됐다. 이름도 강동 온누리교회로 바꿨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가장 먼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 지역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역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 옷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지금은 독거노인들을 찾아뵙고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특징은 젊은 세대가 많은 점이다. 특히 젊은 부부들과 차세대가 많다. 교역자들이 아이들을 성심껏 양육한 덕분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차세대 양육을 잘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퍼졌다. 강동 지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이 모였고, 2012년 이후로는 성인 성도들이

1,000명 이상 모이게 되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또 다른 장점은 구성원들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점이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연단의 시간들이 쌓여 인내와 신뢰를 만들었다. 불만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다. 돌아보니 이것이 강동 온누리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음을 느낀다.

강동 온누리교회 10주년을 보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봤다. 첫째, 청년 부흥에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 갈수록 청년 복음 화율이 낮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리라 믿는다. 둘째, 차세대를 더욱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예배 안에서 차세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사랑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현재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에는 학생 36명과 어머니 33명, 교사 16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대단하다. 천호동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넷째, 2018년부터는 성인공동체 전체를 똑같은 인원 으로 재배치하여 말씀공동체와 믿음공동체를 구성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여 ‘은혜공동체’도 세워지길 소망한다. 다섯째, 지역복음화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천호동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 동쪽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동서울 복음화를 위해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강동 온누리교회가 동서울 지역복음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잔칫상이 마련되었다



이임숙 권사
(대전 온누리교회)

나는 대전토박이다. 시댁도 친정도 모두 대전이어서 외지 생활이라고는 결혼 전 직장 때문에 대구에 잠깐, 남편의 회사 파견으로 서울에 잠깐 있었던 것이 전부다. 짧은 서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를 만났다.

당시 중학생이던 큰 딸과의 불통이 표면적인 문제였는데 하가훈에 가서야 수면 아래 숨겨진 본질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나와 남편과의 불통이었다. 서로 다른 면에 끌려서 결혼했는데 서로 다른 면 때문에 싸우는 부부유형이 우리였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화법이 다르다. 나는 표현을 완곡하게 예뻐서 말하는 편이다. 과잉배려로 모호한 말을 하면서 안색을 살피며 말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남편은 늘 정공법으로 본론부터 바로 말하는 직설화법을 쓴다. 그 때문에 우리 부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뭔데?”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렇게 각자의 습관대로 말을 하다가 서로 공감하지 못했고, 쌓인 상한 감정들이 아파를 속 빼닮은 큰딸에게 폭풍 잔소리로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계도를 통해 나의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끊게 되었다. 감정과 자존감이 분리되었다. 상한 감정이 잔뜩 누그러들었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의 어두운 면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의심도 있었다. 참 새삼스럽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

다.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도 바뀌었다. 선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이 생기고, 주께서 때가 되면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리라. 인간적인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줄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욕구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원칙을 깨닫게 되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여야 할지니라”(행 20:35).

지난해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도 가정사역이 시작되면서 하가훈을 다시 만났다. 유난히 단풍이 곱던 가을에 서빙고, 양재, 수원, 부천, 대전 온누리교회가 처음으로 연합사역을 하면서 하가훈 117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올해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역으로 진행된다.

대전은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을 담당할 허브로서 앞으로의 기대가 큰 만큼 기도도 간절하다. 연합사역의 묘미는 처음 만나는 얼굴들인데도 몇 년을 본 듯한 익숙함과 다양한 재능에 대한 경이로움이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서로 돕고 부족함을 채우는 친밀한 연합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번 하가훈에 지원한 가정들에게 주님의 생기가 되어 기름 부어질 것이다. 주님이 기름을 부어 맛나게 익히려고 뒤집개를 들고 기다리신다. 주님 손에 요리되고 충분히 익혀져 함께 뒤집어지자. 자! 이제 하가훈에서 주님 만날 잔칫상이 마련되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일시: 3월 17일~4월 8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문의: 남상목 총무(010-2022-2827)

신앙에세이



김재승 목사
(서빙고 차세대)

2012년, 내가 차세대 파트교역자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맡은 사역이 바로 패션(Passion)캠프였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집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당시 나는 숙소관리를 담당하는 교역자였고, 1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들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청소년들의 숙소를 관리했다. 숙소를 관리하면서 틈틈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2천 명이 넘는 온누리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뛰고,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 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한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던 나에게 패션캠프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청소년들을 마음에 품는 현장이기도 했다. 2013년과 2014년 패션캠프에서는 영상제작과 찬양인도를 했다.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돕고, 청소년들을 섬기는 기회를 가지면서 나 역시도 성장했다.

전임교역자가 되고 지난 4년 동안은 패션캠프가 없었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하여 잠시 멈춰 있었다. 그 멈춤의 시간동안 패션캠프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2018년 2월 23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2018 패션캠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막 올랐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곳에 모인 온누리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웃고, 뛰고, 눈물 흘리며, 예배했다.

여는 예배와 닫는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집회 PD로 섬기면서 온전히 예배와 프로그램에만 집중했다. 패션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4년 만에 다시 느낀 감격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해 청소년들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몇 차례나 콘티를 수정하고, 보컬팅과 화성을 맞췄다. 밴드팀과 리허설도 했다. 또 한 어떻게 하면 예배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몇 차례나 큐시트를 다시 작성하고, 스태프들의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루할 수 있는 광고를 재미있게 해볼까도 고민했다. 함께 프로그램을 맡은 전도사님들과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패러디하기로 했다. 교역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교역자들이 다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누군가는 인터컴을 쓰고 무대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쭈뼛이를 입고 빗자루질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는 몸빼바지를 입고 춤을 추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청소년들을 섬겼다. 섬김의 결과는 큰 은혜와 감격이었다.

청소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 청소년들은 교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패션캠프를 마음껏 누렸다. 5박6일 동안의 섬김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에 패션캠프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에 패션캠프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교역자님들, 간사님들,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패션캠프에서 예배하고 세상 속으로 달려 나가는 청소년들을 축복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심판과 하나님 나라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후대에 보면 가라지인 경우도 있고, 한때 가라지로 보였지만 후대에 보면 알곡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을 수 없습니까? 알곡으로 심어진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원합니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상의 악을 징벌하면 너도 망할 텐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악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원수가 심어 놓은 가라지까지도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 변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나뭇다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평생 가라지,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이 알곡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라지인 사람이 내일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도 알곡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들이 바로 가라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라지들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당장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가라지들이 변화되어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리처드 벅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가라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이거나 선하지 않은 분으로 오해하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인내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의 가라지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 방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악과 싸우시면서 가라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악과 함께 멸망되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사로잡힌 가라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변화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선교의 기간이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리심과 같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할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시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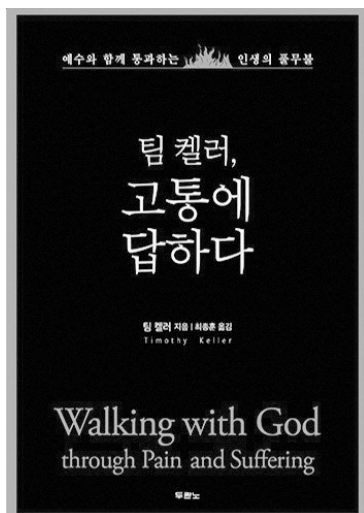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간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고통에 답하다〉는 팀 켈러 목사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신간이다. 고통과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다음은 지난 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팀 켈러 목사 북콘서트 ‘고통에 답하다’ 강연 내용 요약 및 정리.

/ 편집자주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 저 | 두란노 | 25,000원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첫째, 고통과 아픔에 직면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가 고난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종교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분리시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극복하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당신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직면하려 할 때 놀라운 자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둘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간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킵니다. 고난 이후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울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은혜를 받고, 희망하면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는 동시에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울거나 화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겹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를 이 잔에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는 동시에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고난을 올바르게 직면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이유가 도덕적 실패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다시 일어난 것을 믿는다면 인간의 모든 갈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갈망이 실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약속한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약속들도 실제입니다.

Acts29

게시판

2018년 3월 11일(주일) | 제1187호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팅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7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

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8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진새골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3월 31일~4월 28일 매주 토 오후 3시

문의: 진새골 온누리교회(02-444-5882)

일본어예배 한국어교실 베이비시터

봉사자모집

일시: 4월 13일~7월 20일

시간: 매주 금 오전 10시~12시

문의: 박금실 권사(010-2846-5002)

생명의삶 개관세미나<이사야11>

일시: 3월 19일(10:00-12:00)

회비: 무료/선착순 접수(온라인 사전등록)

문의: 02-2078-3252

샘물학교 교직원 채용

채용: 화계(원서마감 3월 19일)

*홈페이지 참고(www.smca.or.kr)

안산 온누리M센터 이주민을 위한

악기 모집

모집: 바이올린, 플룻, 기타(중고 가능)

문의: 유경 전도사(010-7550-2425)

CMN 마노아팀 의료사역

장소: 파주 엘림교회

일정: 3월 18일 오후 12시 서빙고 출발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미니콘

크리스천 청년들의 여러 고민들,
그 해답을 찾아가는 좌충우돌 신앙 공감 이야기

두근두근 마카롱 2018

더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거듭난
두근두근 마카롱 2018

회식에서 살아 남는 법 (3월 15일)

금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칼퇴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현범, 하지만 현실은!

단톡방 무반응에 대처하는 자세 (3월 22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공동체 리더, 가희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늦은 밤, 허전함이 찾아오는 순간 (3월 29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픈 청춘 재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생각들...

여사친의 썸남이 신경 쓰이는 이유 (4월 5일)

소꿉친구인 은남과 가희, 언제부터인가 가희 옆에 있는 재현이 신경쓰이기 시작하는데..

3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페이스북 '노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KNOCK

KNOCK
페이스북 페이지